

CONTENTS

1	배경	1
2	현황	1
	가. 보수교육 제도	1
	나. 실시 현황	3
3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	5
	가. 보수교육 교육과정 교과목의 획일성	5
	나. 보육교사의 시간부족과 대체교사 활용의 어려움	6
	다. 보수교육기관의 낮은 접근성	7
	라. 보수교육 시간 및 기간의 부적절	9
	마. 보수교육 행정의 미비	10
4	정책방안	10
	가. 보수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	10
	나. 보수교육 참여 시간 부족과 교육기관 접근성 해소	14
	다. 보수교육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라. 기타 중장기 방안	18
■	참고문헌	19

① 배경

-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보육교사와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은 자격기준을 높이는 것과 현직 교육 즉,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은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규제가 없어 효과적인 교육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및 원장은 매 만 2년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수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 개별 사정으로 인한 미이수 등으로 적절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도감독도 사실상 거의 없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업무 경력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내용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시기의 경직성 등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② 현황

가. 보수교육 제도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

기 위하여 어린이집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됨.

- 승급교육과 직무교육의 이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 직무교육에는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이 있고 이전에 교육을 받고 만2년이 경과한 자가 대상이 됨.
 - 특별직무교육에 속하는 교육 분야로서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등 3가지가 있음.
 -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 및 원장 정기 직무교육과 새로 원장이 된 자를 위한 신규 원장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보수교육 유형과 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유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직 무 교 육	일반 직 무 교 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신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원장 첫해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직 무 교 육	특별 직 무 교 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교육유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출처: 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6개의 영역에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 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이 그것임.
 - 각 영역에서 교육대상이 보육교사인지 원장인지에 따라 중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범위에서 보수교육이 진행됨. 이러한 직무교육 내용상의 유사점에 대한 문제점은 그간 지적되어 온 바임.
 - 직무교육은 총 40시간 이수로 규정하고 있어 6개 영역 20개의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한 영역당 4~10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짐.

- 최근 개정된 보수교육 교육과정의 특이 사항으로는 ‘보육기초’ 영역에 보육교사 또는 보육원장의 ‘역할과 윤리’라는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었다는 점임. ‘아동학대와 권리 이해’라는 과목과 더불어 어린이집 현장의 아동 보호와 교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
 - 교사 직무교육에서 ‘안전관리와 응급 처치’도 필수과목으로 선정됨.

나. 실시 현황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3조).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수요를 파악하여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됨.



- 위탁교육기관으로는 2011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이 64개가 지정되어 있고, 일반 대학교가 23개 지정되어 있음. 여기에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총 88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전체 교육기관 중 72.3%가 보육교사교육원임.

- 지난 5년간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이수 보육교사 및 원장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표 2〉 참조). 승급교육과 일반직무교육 이수자 수를 합해보면, 2006년 22,187명이었으나 2010년은 33,817명으로 11,630명이 증가하여 5년간 52.4%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은 특별직무교육으로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2.6배정도 늘어남. 즉,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위한 관심이 늘어나고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교육 이수가 가능한 유일한 교육 영역이어서, 이러한 편리성도 이수자 확대에 큰 기여를 한 요인일 수 있음.

〈표 2〉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승급+일반직무		22,187	28,019	29,211	32,329	33,817
승급 교육	소계	10,057	13,943	15,051	16,117	17,838
	1급		8,252	7,374	7,605	9,763
	2급	10,057	5,691	7,677	8,512	8,075
일반 직무 교육	소계	12,130	14,076	14,160	16,212	15,979
	원장	4,793	5,348	6,004	7,215	6,719
	보육교사	7,337	8,728	8,156	8,994	9,260
특별 직무 교육	소계	9,476	11,124	15,134	23,205	24,737
	영아	3,914	5,471	8,625	13,516	17,209
	장애아	2,501	2,962	3,472	5,548	4,238
	방과후	3,061	2,691	3,037	4,141	3,290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 내부자료.

-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40시간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급교육 80시간에 대해서는 1인당 12만원을 지원함.
 -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가 허용하는 한에서 그러하며 규정상 예산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고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 간행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2011년 중앙정부 예산은 1,248백만원임. 여기에 지방정부 예산을 총합하면 두 배 가까운 예산액이 될 것임.

③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

가. 보수교육 교육과정 교과목의 획일성

-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현행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이 원장이나 교사의 경력, 직위, 요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구현아 외, 2009; 지성애, 2007; 김의향 외, 2010, 황해익 외, 2008).
 - 표준보수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일반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에서 동일한 6개 영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교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신규 2급 보육교사가 만2년이 지나 1급 승급을 위해 승급교육을 받는다면 이 때 이 교사는 80시간의 승급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다시 만2년이 지나 3년차가 되었을 때 일반직무교육을 받게 됨. 이 경우 1급 승급교육과 3년 후 40시간의 일반직무교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음.
 - 영역이 같을 뿐 아니라 교과목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다만 시간에서 두배의 차이가 있음. 즉, 두 가지 보수교육에서 각 20개 과목 중 8개 과목의 명칭이 거의 동일하고 그 나머지도 유사한 상황임.



- 따라서 1급 승급교육을 받고 만2년 후 일반직무교육을 받게 된 교사는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연속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어 수업은 오히려 피상적일 가능성이 큼.
-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보수교육의 내용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적극적이지 못한 수업태도를 갖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

-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의 내용이 수강생의 직급이나 어린이집의 근무경력에 따라 달라야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보수교육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나. 보육교사의 시간부족과 대체교사 활용의 어려움

- 보육교사들의 의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실적 어려움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점임.
 - 교사의 8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육 실정에서 볼 때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교사들에게 업무 과중을 부과하는 격이고 주말 교육도 마찬가지임.
 - 구현아 등(2009)의 연구를 보면, 보육교사 355명에게 보수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8%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함.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도 보수교육 참여 저해 요인으로서 교사와 원장 3,785명 중 43.5%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들었음.
- 저녁이나 주말이 아닌 근무 시간 중에 어린이집을 벗어나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음. 보육을 받는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담당 교사의 부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체교사 활용이 어렵다는 점 또한 보수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됨.

- 보육교사들은 업무과중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근무 시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려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음.

다. 보수교육기관의 낮은 접근성

- 보수교육기관은 모두 보육교사교육원이거나 일부 관련 대학들로, 이 같은 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있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음.
-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 보면, 보수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운영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남. 구현아 등(2009) 또한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거리 또는 집과의 근접성 등이 보수교육기관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보고함.

〈표 3〉 보수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운영요인

단위: 명(%)

구분	응답빈도(%)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지리적 근접성	1,639	(44.3)
수업 받는 사람 수의 과다	291	(7.9)
동하절기 냉난방 시설	79	(2.1)
식사, 급수 시설	555	(15.0)
책상과 의자의 불편함	764	(20.6)
기타	373	(10.1)
계	3,785	(100.0)

출처: 김의향·서문희·임양미·민미희(2010).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83.



〈표 4〉 보수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응답빈도(%)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지리적 근접성	192	(47.4)
집과의 지리적 근접성	119	(29.4)
보수교육의 내용	62	(15.3)
보수교육 강사의 명성	14	(3.5)
기타	18	(4.4)
계	405	(100.0)

출처: 구현아·임양미·이기선(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 2011년 현재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都)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수는 총 50개임. 이중 시 지역에 속한 곳이 46개이고 4개가 군 지역에 위치함. 즉 92%의 교육기관이 시 지역에 있음(〈표 5〉 참조).
-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은 춘천에 1곳, 강릉에 1곳이 있음. 전체 행정 시군이 18개임을 감안하고 강원도의 면적을 고려하면 두 도시 인근에 위치하지 않은 곳의 교사들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접근성의 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전국 10개 도 지역 보수교육기관 소재 시·구별 현황

도	행정		보육교사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소재 시군 수	
	시	군			시	군
경기도	27시	4군	43,437명	21	시20	군1
강원도	7시	11군	4,690명	2	시2	군0
충청북도	3시	9군	5,408명	3	시2	군1
충청남도	7시	9군	6,687명	4	시4	군0
전라북도	6시	8군	7,251명	2	시1	군1
전라남도	5시	17군	6,255명	3	시2	군1

도	행정 시군 수		보육교사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소재 시군 수	
	시	군			시	군
경상북도	10시	13군	9,260명	7	시7	군0
경상남도	8시	10군	12,577명	6	시6	군0
제주도	2시	2군	3,142명	2	시2	군0
계	75시	81군	98,707명	50	시46	군4

- 김은설 등(2011)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강좌 당 평균 수강 인원이 100명 내외로 현실적 적절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수를 늘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라. 보수교육 시간 및 기간의 부적절

- 이미화 등(2008)은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보수교육의 이수 시간 수가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교육 참여에 대한 현실적 장애물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나 원장은 교육 시간이 길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도 있음. 따라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보수교육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 가지 이슈가 됨.
 - 현행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승급교육 80시간과 직무교육의 경우는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4~8시간씩 일정 기간 동안 연속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보육교사와 유사한 직종으로 간주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승급을 위한 교육(자격연수)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수로 규정되어 있고 원장 자격연수의 경우는 50일 이상 360시간 이수를 규정하고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임.



마. 보수교육 행정의 미비

-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수교육의 측면은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은 제도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내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총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 검증을 함으로써, 보수교육 중 승급교육은 어느 정도 관리된다고 봄. 그러나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관리가 되지 못함.
 - 이미화 등(2008)도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함.
- 보수교육 전체를 관리하고 개인별 이수 기록 등이 반영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보수교육 관리 체계가 없음으로 인해 보수교육, 특히 직무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없고 교육 이수에 대한 기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느슨하게 진행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됨.
 - 보수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행정 관리체계가 단시일 내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4 정책방안

가. 보수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

1) 보수교육 인정 과목

-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성 측면뿐 아니라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일부를 보육교직

원들의 보수교육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보육 교사 및 원장은 보수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보육정보센터 등 지원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고 있음.

-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보육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표준보육과정이나 위생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을 부분은 필수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그 외에 지역에 따라 보육포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화 교육, 다문화 보육 이해 등의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어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함.
-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1-2개씩 있고 43개 기초지자체에도 설치되어 있음. 중앙센터를 포함해서 총 61개의 보육정보센터가 2011년 현재 운영되고 있어 보수교육 기관 접근성 제고 효과도 있음.

● 김은설·황미영(2011)의 조사결과에서 보면, 안전교육이나 표준보육과정 등의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포함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7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보육정보센터의 모든 교육을 보수교육의 대체과목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보수교육이 가진 취지와 맞지 않고 교육의 질적 수준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현행 표준보수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대체 가능한 과목을 선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표 6>에 나타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교육내용 중 표준보수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서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관련 내용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관련 내용이 이에 해당함.
- 위의 보수교육 교육과정 두 영역이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과 100%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필수로 둬. 즉,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필수과목인 ‘안전 관리와 응급처치’ 2시간은 반드시 보수교육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여 이 영역은 4시간만을



보육정보센터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교육> 영역 관련해서는 6시간까지 과목과는 무관하게 보육정보센터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함. 그러면, 총 최대 10시간까지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대상 수업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표 6〉 보수교육과정과 보육정보센터 교육내용의 비교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 - 표준보육과정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이해 - 교구교재의 개발과 활용 -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10시간	- 표준보육과정이해와 적용 -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만2세미만) -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만2세) -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만3-5세)	6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건강 영양 및 안전>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 안전관리와 응급 처치(필수)	6시간	- 급식 위생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 교육	3시간

-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에 대한 관리임. 우선 보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강연자가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편의적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보육정보센터 교육에 대해 현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다행히 표준보육과정과 건강·안전 관련 강좌는 대부분의 보육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별다른 지원이 적용될 필요는 없음.
- 만일 수강료가 실비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바, 보육정보센터 교육은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정책적 융통성의 입장이므로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는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함.



- ▶ 보육정보센터의 표준보육과정 관련 과목 및 건강·영양·안전 관련 과목을 보육교사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 대체 과목으로 인정함.
- ▶ 단, 보육정보센터의 보수교육 인정은 총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표준보육과정 관련 6시간 이하
 - 건강·영양·안전 관련 4시간 이하
- ▶ 단, 보육정보센터 보수교육 인정 과목의 강의자는 대학 교수, 보육교사교육원 전임 교수, 보수교육승인기관 동일과목 강의 유경험 강사에 한정됨.
- ▶ 보육정보센터 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은 하지 않음.

2) 보수교육 교과목의 다양화

- 보수교육의 교과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직무교육의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김은설·황미영(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6%가 보수교육 과목을 현행과 달리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보수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보강되기를 바라는 보수교육 과목을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분야가 ‘교직원 및 인간관계론 등 소양 교육’(64.3%)이었고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 소질, 기술 교육(37.5%), 교사장학교육(32.1%), 아동인성교육 및 리더십 교육, 동화 구연/종이접기/음률 지도 등 실기 교육(19.6%)이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만큼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품,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을 직무교육에서 보강하는 일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더하여 인문학 강좌나 리더십 교육, 인간관계론 등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강의의 수강은 직무보수교육으로 인정해 줄 만함.
 - 보육정보센터의 손유희, 동화구연 등 교수방법에 대한 교육도 직무교육으로서 적절함.

● 1급 승급교육과 최초 일반직무교육간 비교 결과를 보면 “보육실습지도의 실제”가 중복됨. 현재 보육실습지도에 대해서는 안내 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2010)이 나와 있고 승급교육 시 해당 영역에 배정된 12시간 교육의 일부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 분야의 대체 과목으로 위 다양화 방법을 수용할 수 있음.

- 이 사항은 원장 신규나 일반 직무교육의 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원장의 경우는 보육교사와 달리 ‘보육사업의 운영’ 영역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임.

- ▶ 해당 보수교육 유형: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과정)
- ▶ 교과목 이수 인정 분야: 교사 소양 함양 및 교양 교육
 - 교사론, 교직원
 -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 강좌
 - 리더십 교육, 인간관계론
 - 교수방법: 예) 손 유희, 창의적 미술 교육,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 ▶ 인정 시수: ‘보육사업의 운영’ 영역 대체 4시간
- ▶ 교육주최 기관: ① 보육정보센터, 교육청, 도서관, 지자체 등 공공 기관
② 한국어린이집연합회, 각종 관련 학회
- ▶ 인정절차: 이수증 제출을 통한 시수 인정
- ▶ 교육비용지원: 없음.

나. 보수교육 참여 시간 부족과 교육기관 접근성 해소

1)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 교육기관 접근성을 최적화하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무지를 최소 기간 떠나있게 함으로써 대체교사 미이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임(이미화 외, 2009).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온라인

교육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음.

- 조사결과(김은설, 황미영, 2011)를 보면, 온라인 교육의 범위는 직무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현행 표준보수교육과정 중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전환되기에 적당함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보육의 기초’와 ‘보육사업의 운영’,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임.

-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은 집체교육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일반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나 교육과정 영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온라인 교육이 무리가 없다고 지지되는 위의 세 가지 교육과정 영역의 직무교육 시수는 총 16시간이므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더라도 24시간은 보수교육기관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야 함.

- 정부의 보수교육비용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보수교육기관으로서 시간 수가 줄어들므로써 운영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다 규모가 큰 승급교육을 온라인화하지 않고 직무교육만을 온라인으로 하여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운영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임.

-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임.

- 현행 직무교육 6만원 지원을 유지하여 개인별로 모든 직무교육 시수를 충족시킨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비용을 생각하여 온라인 체계 신축시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함.



- ▶ 해당 보수교육 유형: 일반직무교육
- ▶ 온라인 이수 가능 보수교육과정 영역:
 - 보육의 기초 (6시간)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6시간)
 - 보육사업의 운영 (4시간)
- ▶ 인정 시수: 총 16시간
- ▶ 교육주최 기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지정 기관 및 연계 온라인교육기관
- ▶ 교육비용지원: 오프라인 24시간까지 총 40시간 이수 후 60,000원 환급

2)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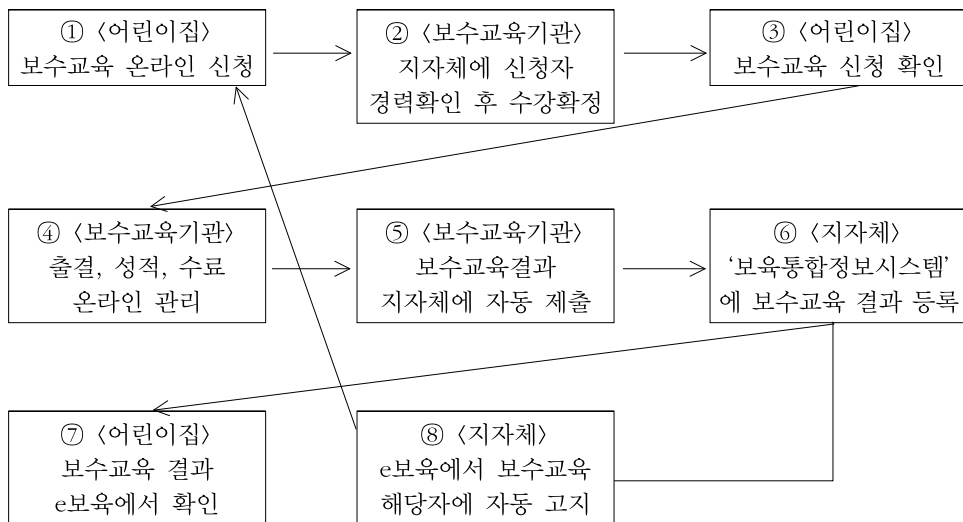
- 보수교육 참여 시간의 불충분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수강 저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보수교육을 단기간 동안 모두 40시간, 80시간씩 연속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법정 기간 내에 수강자가 자유롭게 수업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를 의미함.
 - 이 제도는 조사(김은설·황미영, 2011)에서 볼 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승급교육과 직무교육 할 것 없이 모두 수강 저축제를 적용하는 데 가장 많은 수가 동의함.
 - 한 번에 받는 보수교육 과목이나 시수는 자율적이거나 한 과목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강할 수는 없으며 과목별로 또는 영역별로 묶어 연속 수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해당 보수교육 유형: 승급교육, 직무교육
- ▶ 해당 교육과정 영역: 모든 영역
- ▶ 분할 이수 방식: 자율(모든 수업은 평일 주간 이용)
- ▶ 교육비 납부 방식: 이수 시간 당 수강자가 납부
- ▶ 교육비용지원: 총 이수 시간 완료 후 60,000원 환급

다. 보수교육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이수 이력이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측면이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어렵게 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국 시스템에서의 보수교육 관리가 필요함.
- 지자체별로 온라인상에 보육포털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보수교육기관과 교육이수자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수교육 신청 및 관련 관리를 한 곳하고 이를 정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력이 확인되도록 함.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면 해당 개인에게 자동 통보가 가도록 하는 알림시스템이 작용되게 할 수도 있다.
- 행정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인증 실사 평가자가 e-보육을 통해 각 시설의 현황을 검토하고 태만한 보수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지자체에 고지하여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교사 평균 채용 기간이 길고 보수교육 이수 우수 결과를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의 우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 지자체 보수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방법



라. 기타 중장기 방안

1) 보수교육비 지원

-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이나 보수교육기관의 재정구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수교육 비용지원에 대한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20,000원 정도의 인상을 검토해볼 만함.
 - 정부 보육예산의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면 단시간 내에 지원비용을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직무교육에 대해 증액지원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음.
 - 조사(김은설·황미영, 2011)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40시간 직무교육의 경우 평균 37,444원의 증액 의견이 지배적임. 공무원의 경우에는 18,232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를 절충하여 20,000을 제시함.

- 승급교육의 경우 개인의 자격승급 교육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 특히 초중등교사나 유치원교사, 원장·원감 자격 연수의 경우 장기 집체교육임에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그것은 철저히 참여 대상자의 수를 규정하여 한계를 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가능함.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적용됨. 보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다수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이라면 승급교육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을 가짐.

2) 보수교육 시간과 기간의 개선

-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가 장기간 부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교육 시간 확대를 위한 보육예산 증액 확보 또한 어려운 일이므로 단시일 내에 보수교육 시간 확대는 무리한 사안이라고 봄. 이 문제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과 지원이 향상된 이후 장기적으로 개선을 논의해야할 문제임.
 - 유치원교사의 180시간 자격연수와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승급교육 시간은 턱없이 적음. 이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시간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구현아·임양미·이기선(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 김은설, 황미영(2011). 보육교직원의 효율적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의향·서문희·임양미·민미희(2010).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38.
-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이미화·김경희·김문정(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홍승아·박수진·이윤희(2009). 보육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비교 평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삼성복지재단.
- 지성애(2007). 보육교사 보수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1(3), 155-180.
- 한국보육진흥원(2010). 표준보수교육과정.
- 황해익·박성미·김정신·박선해(2008). 보육교사 승급보수교육에 대한 교사와 원장의 인식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53(6), 173-198.